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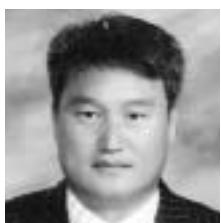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여주시, 제18차 세계 한상대회 준비 '박차'

지역기업 수출판로 확대 집중·청년인턴 채용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



전 세계 60여 개 국가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기업인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 간 여수에서 펼쳐진다.

시는 지난해 4월 전남도와 공동으로 대회 개최 후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를 차질히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역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대회 기간 중 한상기업, 해외바이어 등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역 우수기업에 전시부스비를 지원한다. 또 여수시 특별 홍보관 운영과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특산품과 관광자원 등을 소개한다.

수출상담회,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특히 한상기업 청년인턴 체

용프로그램에 많은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청년인턴 채용프로그램은 70여 한상기업이 대회 기간 현장 면접을 통해 청년인턴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근무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며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시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13일 TF 지원단을 꾸리고 27일 오전 보건소 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여주시 18개 부서가 총괄지원, 투자·기업지원, 관광·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계한상대회는 여수의 경제자원과 해양관광자원을 국내외 경제인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면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강진군, 친환경농업 1번지 위상 확립

친환경 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 추진



강진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인, 명예감시원, 농협 및 관계 공무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유기농 실천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승옥 강진군수의 인사말에 이어 강진군 친환경농업 인연합회 대표의 유기농 실천대집 및 결의문 낭독 2019 친환경 농업 정책 방향 설명, 구조적인 쌀 과정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설명,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추진계획, PLS 제도, 변경된 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강진군은 유기농 실천 순회교육을 통해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친환경 농신물의 재배면적 증가는 물론 질적인 성장을 주진해 남도여행 1번지, 및 1번지에 걸맞은 안전농산물 1번지로서의 친환경농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저비용 친환경농업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 친환경 농업정책방향 중 가장 업무에 둘 부분은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각종 친환경분야 정부지원 보조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무농약인

증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비를 축소하는 점이다.

무농약 새 인증 친환경실천농가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유기 전환기 및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사 시작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농업직접불재 등 각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상농가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승옥 군수는 "여기에 계시는 한분 한분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업인이며 여러분이 생산하는 하나하나의 농산물이 군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이다.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강진군이 안전농산물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행정에서도 유기농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